

우리 딸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 _ 심장병 어린이 채은이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채은엄마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로는 제 마음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채은이 수술비를 마련해주신 덕분에 2010년 11월 10일 심장병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늘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식은 땀을 줄줄 흘리는 탓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해서 첫돌이 돼서도 6개월 아기 몸무게 밖에 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가슴 한 구석은 항상 시린 듯 아팠습니다. 채은이가 처음 심장병이란 확진을 받았을 때가 생후 한 달쯤 지나서였어요. 소아과에 갔다가 심잡음이 들린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더군요. 심장 안에 구멍이 있는 선천성 심장병이라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더라고요. 100명에 한명 정도 생긴다는데 그게 왜 우리 아이 인지를 신(神)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저는 그 때 하늘도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늘 걱정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라 당장 수술비 마련도 어려웠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인 저도 두 달 정도는 휴직을 해야 하나까요.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반신반의 하며 망설임 끝에 “한국 심장 재단”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픈 환우들을 보며 후원금 한번 내보지 못했지만 병이 걸리는 것 모두 남의 일이라 생각했죠. 막상 아이가 아프니 다른 아이들을 봐도 눈이 한 번 더 가고 왜 이리 아프고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많은지 그냥 화가 치밀었어요. 물론 아이가 아픈 거지만 부모 마음은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 염치없음을 마다하고 무작정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심장 재단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기를 바로 수술을 시킬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수술 이틀 전에 서울에 왔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 떨려서 아기 얼굴만

보고 또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 첫 수술이라 새벽부터 일어나 채은이 고통을 내가 대신 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아가가 제발 잘 견뎌주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 하며 차가운 수술대에 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4시간의 긴 수술 끝에 수술이 잘되었다는 말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무 종교가 없었지만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니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나 봐요.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죠. 만나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에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눈에 띄게 건강해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지 않아도, 식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심에, 심장이 잘 뿔 수 있음에, 다시 웃음을 주심에 주님의교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살아가며 큰 사랑 받은 것 잊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저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살면서 조금씩 갚아 가고 싶어요. 채은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긴 선(線)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랑이 담겨있는 소중한고도 특별한 심장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사랑의 증거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퇴원하는 날, 주님의교회 목사님과 교우님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해주고 사진도 같이 찍어 또 다른 감동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그 때의 그 분들의 모습 생각이 납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희들도 행복의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님의교회’ 교우님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족 언젠가 주님의교회를 찾아 감사인사 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_제주도에서 채은이 엄마 드림

고채은 (38차 결연어린이환자) 2009년 8월 27일 생
서울 아산병원 2010년 11월 8일 입원, 11월 10일 수술, 12월 16일 퇴원 하였습니다.

〈자료수집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눈이 없어 들리지 않았네

이 희 숙

시속 700km의 검은 물바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온갖 경계를
휩쓸어버린 저 괴물의 등털미

해연(海淵)에서
천년 잠자던 바다괴물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었는가

귀신고래의 전율을 느꼈느냐, 누이야

해심에서 태질치다 솟구쳐 오르는 용틀임이
태평양을 휘감아 내리치던 소용돌이
와이키키 해변으로 내달리다가,
호주 앞바다 산호초를 움츠려놓고,
칠레 아타카마사막 콘도르 날개를 기우뚱 흔드는
쓰나미해풍을 보았는가, 쓰나미전선을 보았는가

도호쿠 대지진의 화, 불, 단, 행(禍不單行)
여진의 공포와 원전파폭의 불안, 허기와 추위
눈, 귀, 오감각 다 잃고, 남의 생각대로 살아온
작고도작아진 우리가 무슨 역사를 지키겠는가

꽃감처럼 쪼그라든 세상이 하나같이 슬퍼하고 있다

사흘 만에 ‘기적구출’ 한 4개월 아가!
따듯이 품에 안은 자위대원의 흐뭇한 주름살에서
복받은 섬, 후쿠시마(福島)의 미래지도가 보이지 않느냐

새 하늘 새 땅에 파릇파릇 차오르는 새 생명들
마음에 담고 귀 기울여보자, 누이야
초록물결 반짝이며 달려오는 빛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교회소식 이모저모

학원선교부 봄학기 세미나

지난 3월15일 학원선교부에서는 봄학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로 주의 일 하였습니다” 주제 아래 정신여중.고에서 사랑 어머니, 기도 어머니로 봉사하시는 150여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코칭 리더십 센터의 이영우목사님, 벡타선교회의 김경숙 목사님의 특강과 중,고등부 사역별로 모여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등부 사랑 어머니와 고등부 기도어머니는 앞으로 1년간 정신여중,고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은주 기자_ej3153kr@yahoo.co.kr〉

독거노인 죽배달을 시작하며

4월, 그 파스한 날에 고맙게도 또 봄이 왔습니다...

겨울 동안 쉬었던 독거노인 죽배달이 4월 4(월)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16분의 봉사자들이 마친 1동과 마친 2동과 거여동에 계신 독거노인들과 중증환자분 50여분들에게 주님의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죽을 배달하여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넉넉해졌으면 하는 기대와 조용히 파스하게 스스로의 마음에서 “함께”라는 말이 주는 향기를 느껴봅니다.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함에 그 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사역팀)

〈신형섭 기자_noel109@hanmail.net〉

함글함글 <편집부>

편집장: 홍기협 편집자문위원: 정양재

편집기자: 노대홍, 정선휘, 김희영, 이은주, 정경혜, 신형섭

사진기자: 서정하, 김은성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담당 교역자: 최용석

함글함글에 글을 신기 원하시는 분은 기사를 작성하셔서 hamletter@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에서 검토 후 실어 드립니다.
문의: 최용석 목사 T.010.4234.4489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_막 10 : 45

통 권 제 281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3월 27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_ 롬 12:15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Pray For Japan 이웃나라 사랑나눔예배

지난 3월 23일 수요일에는 대지진과 해일로 고통 중에 있는 일본을 위한 “이웃나라 사랑 나눔 예배”로 한국에 있는 서울일본인교회의 요시다 고조 목사님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맡은 김도묵 장로는 대지진과 해일의 피해로 최악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이웃 일본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 절기를 일본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주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요시다 고조 목사는 마태복음 22장 34-40절의 성경말씀을 통하여 “참된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요일예배에 초청해 주신 것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일본인으로서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의 침략과 핍박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인 신사참배의 강요와 그로인한 기독교인의 순교에 대하여 아직까지 진심으로 사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대지진 참사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것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의 나라 1억3000만 일본사람들이 진심으로 감사, 감격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74년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함 집회 참석차 처음 한국을 방문한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매일 밤 150만 명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말씀과 찬양, 간증으로 이어지는 집회 기간 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하였으며 그 이후 삶과 사교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1982년 서울일본인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본목사로서 한국과의 화해사



역을 감당하겠다는 소명을 품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30년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참된 이웃사랑”에 대하여, 첫 번째 이웃사랑 실천의 예는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고백 하였습니다.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며, ②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느낄 수 있고, ③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 실천의 예는 정신학원 공동체임을 간증 하였습니다.

① 100년 정신학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장녀)인 일본인 학생의 입학허락을 주었고, ② 그 학생이 받은 사랑에 고마워 한국대학에 진학하여 한국사를 전공하게 되었으며, ③ 또한 빛진 사랑에 사역자의 사모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이번 대지진의 최대 피해지인 센다이시에 위치하였으나 안전함)

세 번째 이웃사랑 실천의 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선포 하였습니다.

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②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③ 하나님 사랑 / 이웃 사랑 - 사랑의 십자가가 구현되는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웃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기도회에서 박원호 목사는 일본을 위하여 네 개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1. 지진과 원자로 (방사능유출)의 위협으로부터 일본 땅을 지켜주소서.
2. 가족과 집을 잃고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임하소서.
3. 구조와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지켜 주소서.
4. 일본 땅이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보게 하소서.

<홍기협 기자 keehhong@hanmail.net>



고난의 중으로 오신 예수



*참회의 수요일(3월 9일)

*사순절 첫째 주일(3월 13일) - 테네브레예배

*사순절 금식

*종려주일(4월 17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18일 ~ 23일)

*성금요일예배(4월 22일)

주간 목회력

<장애인 주일>

4. 17(주일) 장애체험단 신청을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받습니다. (지체, 청각, 시각장애)

<크리스천다운 남다른 성공>

4.3(주일) 오후 3:20 / 밀알실(3층)

<교육목회원 전체교사대학>

3.20, 27(주일) 오후 3:30 / 대예배실

<해외선교 비전트립>

3.27(주일)까지 4층 교역자실로 제출

테네브레 예배를 돌아보며 2면

교육목회원탐방 / 봄학기 교사대학개강 3면

심장병 어린이 / 교회소식이모저모 외 4면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테네브레 예배를 돌아보며

지난 시순절 첫 주일에 우리교회 성도들은 테네브레 예배 속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테네브레(Tenebrae)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희생과 죄의 무서운 결과를 성도들의 마음 속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초대교회 때 부터 성 고난 주간 에 드러 온 예배입니다.

테네브레의 뜻은 “어두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 세상이 어두움에 싸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중 말씀이 봉독되면서 차례로 촛불이 꺼지고, 교회 안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완전히 어두움에 이르게 되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고, 주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물고 간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성도들은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도 그 시간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행된 내용들을 이제 만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돌아보면서 빛이신 주의 긍휼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은혜의 계절을 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기 시작하니,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빛이 이 세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취었습니다.

* 이 빛은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 이 빛은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 이 빛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 이 빛은 예수... 예수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이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 예수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참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죄인들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결정해야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무서운 댓가는 빛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빛이..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유대민족이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이 돌아왔다. 저 분이 왕이 되실거야” 소리쳤습니다.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옷 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께 선고되었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진 주님의 얼굴은 피로 물이 들었고 등에는 무거운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자신을 구원해 보라” 조롱과 침뱉음과 내리치는 채찍질을 당하며 살아있는 사람이 최후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불리어지는 길,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길,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 비아..돌로..로사’ 이 죽음**

의 길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지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해골골짜기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 꺼졌습니다.

+ 2011년, 지금도 세상은 어둠의 소리, 불의와 탐욕의 소리, 전쟁의 소리, 죄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유다처럼 탐욕으로 세상의 은 삼십을 위하여 달음질치는 사람들, 베드로처럼 기로에 설 때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들, 빌라도처럼 모든 허물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며, 홀로 의인인 척 손을 씻는 사람들,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고통 받으시는 주님 만을 홀로 남겨 둔 채, 고난의 자리를 피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는 사람들, 그 속에 우리가... 내가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속에.. 내 속에... 남아있습니까?

〈박혜성 목사_biblehs@hanmail.net〉

3월 정기당회 결의사항

1. 시순절 개안수술 행사 건은 예배분과위원회와 복지분과위원회가 공동주관이 되어 진행하기로 하다.
2. 교육부서의 비품, 집기, 설치물 요청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3. 복지법인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섬김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기로 하다.
4. 베트남파송선교사 선발 건은 해외선교분과위원회에서 추천, 인사위원회를 경유하여 당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5. 교육공간확보TF팀의 위원회로의 명칭은 교육공간위원회로 하기로 하다.
6. 주님의동산 건은 계속 추진하기로 하다.
7. 요람위원회 건은 조직을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미디어분과위원장(박대길장로)이 맡고 위원 인선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8. 2011년 주님의교회 향존직 선거관리 시행세칙안 중 제7조1항의 후보자 추천자격은 작년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받기로 결정하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장로후보자격중 주님의교회 등록후 7년을 10년으로 강화하고 피택인원을 장로10명, 권사 20명, 안수집사 20명으로 하고 선거일정은 10월 첫째주일에 공동의회를 개최, 1차투표를 하기로 했다.
9. 이호 목사의 사례비는 개척예산 3억원 내에서 지출하되 월 245만원으로 하기로 하다.
10. 교역자 사택 건은 건물을 구입하는 기존안을 취소하고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기로 하다.
11. 유성훈 목사의 이사로 인한 사택 전세금 1억 8천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하다.
12.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하는데 부족한 금액 1,7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하다.

교육목회원 <썹트네 유아부>

썹 “썹트네~썹터요~내 마음에 사랑이~썹~!!
썹트네~썹터요~내 마음에 사랑이..” 썹

주일 아침 주님의 교회 1층 유아부실에는 아이들의 힘찬 찬양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45세 유아부 천사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썹을 띄우는 곳, 이곳은 썹트네 유아부입니다. 유아부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혼자있는 것을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23개월이 지나면 곧 잘 적응하게 됩니다. “썹트네를 부르면~네네! 선생님!” 선생님이 부르면 썹썹하게 대답하는 유아부 천사들, 즐거운 찬양과 신나는 율동을 따라하며 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배웁니다. “썹!~두 손을 모으고 썹! 두 눈을 꼭 감고 썹!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예쁜 두 눈을 꼭 감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며 아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은 전도 사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귀를 쫓~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며, 아이들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아이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썹이 썹썹~자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아부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생님은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의 썹을 심고, 끊임없이



는 기도와 관심으로 정성껏 물을 주며,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을 어려워하고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선생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잘 적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아부에서는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배 후에 반별로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유아부실은 사랑과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썹트네 문을 나서는 아이들을 배웅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아쉽지만, 다음주일에 유아부천사들을 또 만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유아부는 두 부서로 나뉘어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 1부는 9시 30분~10시 30분, 유아 2부는 11시 30분~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유아부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일 해도 추수의 때를 기다리기에 행복한 농부의 마음처럼,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썹이 트는 행복한 공동체, 유아부로 오세요~!!

<김해나 전도사_hae-na1114@hanmail.net>

봄 학기 교사대학 개강



‘기도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주님의교회 2011년의 슬로건입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더 훌륭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인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에는 아기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와나 커비, 어와나 불티, 어와나 티엔티, 중등부, 고등부 등 12개 부서에 교역자 15명, 교사 424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 4:16)이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에서 주관하는 2011년 봄 학기 교사대학이 교육목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회 본당에서 3월 20일과 27일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3월 20일 첫날 3시 30분 박혜성 목사의 인도로 봄 학기 교사대학의 막이 열렸습니다.

첫 프로그램으로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적 거인을 깨워라”라는 제목으로 손종국 목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손종국 목사는 청소년교육선교회 본부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소년 교육> <청소년 지도> <하나님이 잡으신 연필> 등 10여 권의 저서와 <부활과 구속> 등의 역서를 펴낸 바 있는 교회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특강은 리더십의 문제, 교사의 본질과 교육의 자세, 학생 교육의 방법론을 주제로, 이 시대의 교회 교육의 본질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조명하였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힘과 지위와 전문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는 말씀처럼 헌신하는 자세에서 나오며, 교사들은 농사꾼의 마음으로 학생을 양육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는 데에서 완성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성령의 기적을 거둘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하여 많은 은혜를 받은 특강이었습니다.

다음 아기부부터 고등부까지 각 기관의 교역자와 교사들 소개가 있었고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신입교사 별로 나뉘어 부서별 센터학습이 있었습니다.

3월 27일 3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두 번째 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란 제목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혜성 목사의 특강과, 중등부 김현주 교사의 “좋은 교사 만나기” 특강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어서 김도일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원리”라는 제목의 연합 특강으로 봄 학기 교사대학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김희영 기자_hykim62@hanmail.net>